

HIV치료제 美서 ‘무결점’ 통과



‘CT-G07’ 생산시설 실사 리포트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 신호탄
이중정 생산능력 평가 중심 진행

셀트리온이 지난 1월 미국식품의약국(FDA)가 실시한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CT-G07’ 생산시설 실사에 대해서 최근 최종 ‘무결점’ 리포트 결과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CT-G07은 셀트리온이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HIV 치료제(3성분 복합제) 개발신약으로, 이번 무결점 통과로 회사의 글로벌 케미컬 의약품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실사는 HIV 치료제인 CT-G07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에 대한 것으로, 기존 전체 생산라인 cGMP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이중정 생산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실사가 진행됐다.

CT-G07은 최근 글로벌 HIV 치료제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성분으로 구성된 3성분 복합치료제로 클린턴의 료재단 CHAI에 따르면 해당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생산시설에 대한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빠르면 4월부터 CT-G07의 상업 생산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해 5월, 9월 각각 미국 시판을 위한 FDA 허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

Q)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CT-G07이 출시되면 전체 1조 2000억원 시장에서 사업초기 10% 점유율에 해당하는 1200억원 규모의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점차 매출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20% 이상까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은 그룹사 케미컬 제품의 핵심 생산기지로 글로벌 기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FDA 실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케미컬 의약품 생산 설비와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면세점에서 연작을 구매하려고 줄 선 고객들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인터, 화장품·리빙 “기대 이상” 코로나19 타격... 패션부문 “기대 안돼”

작년 화장품 부문 매출 37% 증가
온라인 매출 늘었지만 비중 적어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부문과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가 사업을 확장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패션부문도 지난해부터 강화해오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실적 개선은 힘들어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845억원으로 전년보다 52.2% 증가했다. 매출은 1조4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순이익은 753억원으로 30.6% 늘었다.

◆비디비치·연작, 잘나가네

화장품 부문은 지난해 매출이 37%나 늘며 실적을 견인했다. 화장품 매출의 63%를 차지하는 비디비치가 지난해 내내 판매 호조를 보였고, 바이레도·딥티크 등 수입브랜드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신규브랜드 연작의 4분기 면세점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힘을 보탤다.

고기능성 한방 화장품 연작은 론칭 후 면세점과 백화점에 입점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쌓았으며, 올해는 본격적인 히트 상품 육성과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초 면세점 브랜드의 매출을 견인하는 전초컨트레이트를 기능별, 부위별 제품으로 세분화해 좀 더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나섰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는 앞서 중화권 스타 왕대륙을 모델로 발탁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냈다. 실제로 비디

비치는 중국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2017년 22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8년 1250억원, 지난해 2000억원 이상으로 초고속 성장 중이다.

◆자주, 전문점 확대·베트남 시장 공략

생활용품 전문점 자주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단독매장을 14개 출점했다.

지난해 자주는 베트남 호찌민 이온몰 탄푸점에 1호점을, 동커이 빈컴센터 지하 2층에 2호점을 오픈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했다. 주 구매층인 25~34세 여성을 겨냥해 주방 제품과 생활 소품, 유아동 패션과 식기류 등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했다. 지난해 자주가 기록한 매출은 2173억원으로 2018년(2006억원) 대비 약 8% 늘었다.

◆패션 부문, 정체기 벗어나나 했는데

정체기에 머물렀던 패션 부문은 공식 온라인몰 S.I.VILLAGE(에스아이 빌리지)가 지난해 11월 월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나아지나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온라인몰을 강화한 결과 올해 1~3월 매출이 2배 가량 늘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온라인 자사몰은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며 크게 선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패션의 경우,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90%에 이르기 때문에 온라인몰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루 세번 양치질, 당뇨병 위험 낮춘다

구강 위생, 당뇨발생 연관성 연구
양치질, 당뇨발생 위험도 8% 감소
치아 결손 15개 이상, 당뇨 가능성

전문 치석 제거를 받거나 하루 세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것이 당뇨병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서울병원 송태진, 이대목동병원 장윤경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구강 위생 상태 호전에 의한 당뇨 발생 위험성 감소’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로 치주 질환 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 상태와 당뇨 발생의 연관성을 규명해 유럽당뇨병연구학회(EASD) 국제 학술지 ‘Diabetologia’ 최신호에 게재됐다.

치주 질환과 불량한 구강 위생 상태는 일시적인 균혈증과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전신 염증 반



송태진
이대서울병원 교수



장윤경
이대목동병원 교수

응은 당뇨의 발생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치주 질환의 유무와 구강 위생 상태 관련 인자들이 당뇨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총 18만8013명을 대상으로 국가 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연구 대상자에서 치주 질환의 여부와 구강 위생 척도(양치질 횟수, 연간 치과 방문 여부, 전문 치석 제거 여부, 치아 손실 개수)를 확인했으며

동반 질환 및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 검진 결과를 수집해 당뇨 발생의 예방 혹은 촉진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주 질환이 있는 집단과 치아 손실이 많은 집단에서 당뇨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전문 치석 제거를 받은 집단과 칫솔질을 자주 한 집단에서는 당뇨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 특히 다양한 관련 인자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치주 질환은 당뇨 발생과 양성 연관 관계를 보였다. 하루 세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경우 당뇨 발생 위험도가 8% 감소했으며 치아 결손이 15개 이상인 경우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았다.

장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단하게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인 양치질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예방 관리로 추후 당뇨에 의한 합병증과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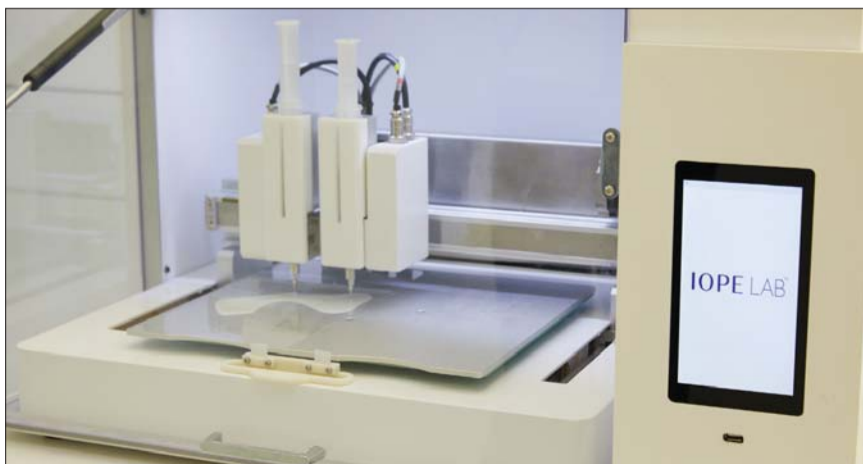
톤은 물론 기호까지 맞춤형... 아이오펜 3D 마스크 ‘눈길’

내달 ‘테일러드 프로그램’ 서 출시

아모레퍼시픽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아이오펜 맞춤형 3D 마스크’를 중심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이오펜 맞춤형 3D 마스크 서비스는 4월 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제도도 지난 14일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됐다. 맞춤형 화장품은 고객 피부 상태 측정과 상담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원료를 현장에서 혼합·소분해 만든다. 피부 톤은 물론 기호까지 반영해 자신에게 딱 맞는 화장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분야의 선두주자인 아이오펜은 2017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아이오펜 랩에서 3D 마스크와 개인



아이오펜 테일러드 3D 마스크 제조 과정

맞춤형 세럼을 체험하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글로벌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2020’에서 아이오펜 맞춤형 3D 마스크가 혁신상을 받는 쾌거

도 올렸다.

아이오펜의 맞춤형 3D 마스크는 4월 말 다시 문을 여는 명동 ‘아이오펜 랩’의 뷰티 서비스인 ‘테일러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출시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이노션 星港·印尼 법인 신설... 아·태 공략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해외 신규 광고시장 개척·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시너지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노션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해외법인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션은 기존 인도, 호주 이외 동남아 국가에 사업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이노션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법인 출범 이후, 디지털 전문 그룹 웰컴 월드와이드(Wellcom Worldwide, 이

하 웰컴)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게 돼 현대·기아차 아태 지역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조기에 대응한다. 향후 이노션의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주변 아태 지역 국가 진출 확장 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16일 공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현대차 인니판매법인 마케팅 서비스 조기 대응으로 아태지역 내 잠재성장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mj@